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Dialogue: Lesson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KDI-아시아재단 공동주최 전문가 간담회 출장보고서

2011. 6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추진배경

□ 그동안 국제 개발협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전통 공여국)들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여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 국제 개발협력분야에서 신흥 공여국들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부각됨.

○ 통상적으로 국제 원조 관련 논의에서 개발협력에 관여하는 국가들을 공여국(donor)과 수원국(recipient)으로 양분하지만, 여러 나라의 경우 공여국인 동시에 수원국의 입장임.

- 자신보다 상황이 좋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보다 상황이 나쁜 국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 국가들의 경우 시혜적인 원조(aid)보다는 국제 연대에 기초한 협력(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함.

○ 또한, OECD DAC 회원국을 전통 공여국으로, 비회원국을 신흥 공여국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공여국 중 상당 수는 이미 1950년대부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해 옴.

□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였으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토대로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이에 KDI는 아시아재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여, 2011.11.29~12.1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세계원조총회(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 대비하고자 함.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개발협력 활동을 비교하여 신흥 공여국간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전통 공여국과 비교, 양 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동연구의 결과는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 예정(2011.10월 중)

2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KDI-아시아재단 공동주최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의 접근법: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훈' 전문가 간담회 참석

* 1차 전문가 간담회는 2011.3.23-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 9월 29일 서울에서 단행본 발간을 위한 저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2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스리랑카 콜롬보

□ 기 간: 2011년 6월 14일(화) ~ 18일(토), 출·입국일 포함

3 출장자 명단 : 총 3명

성 명	소 속	직 책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장
김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연구원
서민영	KDI School	개발교육연구실 성과평가팀 연구원

3 출장일정

□ 출장자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6.14(화)	08:50	인천 출발 (임원혁, 김윤정, 서민영)	KE671
	14:00	싱가포르 도착	
	16:10	싱가포르 출발	UL312
	17:20	콜롬보 도착	
6.15(수)	8:30~17:00	전문가 간담회 Day 1	Hilton Hotel
	19:00~21:00	환영만찬 참석	
6.16(목)	8:30~16:00	전문가 간담회 Day 2	
	23:40	콜롬보 출발 (임원혁)	UL316
6.17(금)	06:00	싱가포르 도착	
	08:00	싱가포르 출발	SQ608
	15:35	인천 도착	
	14:55	콜롬보 출발 (김윤정, 서민영)	EK348
	21:15	싱가포르 도착	
6.18(토)	00:55	싱가포르 출발	KE642
	08:10	인천 도착	

□ 전문가 간담회(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Dialogue: Lesson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일정

○ DAY 1: 2011.6.15일 수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Moonstone, Amethyst Room Hilton Hotel	8:30~9:00	**세션1: Welcome and Introduction** - 환영사: Gordon Hein(아시아재단), 임원혁(KDI) - 참가자 소개: Anthea Mulakala(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 KL회의 결과보고 콜롬보 회의 목적 소개: Edward Reed(아시아재단, 한국지부)
	9:00~10:30	**세션2: Partner Experiences and Strategies for Donor Engagement** - 좌장: Banchong Amornchewin(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nership Thail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TICA) - 스리랑카: BMS Batagoda(스리랑카 재정기획부)
	10:30~13:00	**세션3: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Case Study Sri Lanka** - 좌장: Prabodh Saxena(인도 재정부) - 중국: Mao Xiaojing(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CAITEC) - 인도: Vikram Misri(Indian High Commission Sri Lanka) - 싱가포르: Tin Fook KOH(싱가포르 외무부) - 한국: 조상우(KOICA 스리랑카 사무소) - 호주: Sally Mackay(AusAID 스리랑카) - 일본: Akira Shimura(JICA 스리랑카) 토론 및 코멘트 - BMS Batagoda(스리랑카 재정기획부)
Lunch Spices Restaurant	13:00~14:30	오찬
Moonstone, Amethyst Room Hilton Hotel	14:30~17:00	**세션4: Current Development Cooperation Debates: Challenge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 좌장: Peggy Kek(아시아재단 싱가포르지부) - Jonathan Stromseth(아시아재단 중국지부) - Wenping He(Institute of West Asian and African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 황원규(강릉원주 국립대) - 임원혁(KDI)

Moonstone, Amethyst Room Hilton Hotel	19:00~21:00	**환영만찬** - 연설: Mr Ajith Navard Cabraal(스리랑카 중앙은행)

○ DAY 2: 2011.6.16일 목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Moonstone, Amethyst Room Hilton Hotel	9:00~11:00	**세션5: Current Development Cooperation Debates: Challenges to Aid Effectiveness** - 좌장: Kim McQuay(아시아재단 태국지부) - Siriporn Wajjwalku(태국 Thammasat대) - Mao Xiaojing(CAITEC)
	11:00~12:15	**세션6: Perspectives of Selected DAC Donors on Asian Approaches** - 좌장: Herizal Hazri(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 발표: Mark Bailey(AusAID) - 토론: Sachin Chaturvedi(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Curry Leaf Restaurant	12:15~14:00	**오찬연설 및 오찬** - 연설: 임웅순(외교통상부)
Moonstone, Amethyst Room Hilton Hotel	13:30~15:45	**세션7: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the Aid Debate** - 임원혁(KDI) - Floor Debates
	15:45~17:00	**세션8: Closing Remarks** - Gordon Hein(아시아재단) - 임원혁(KDI)

4 전문가 간담회 주요내용 정리

1 Partner Experiences and Strategies for Donor Engagement

1. 스리랑카-공여국 간 개발협력 관계: 경험과 전략

○ 스리랑카는 중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발전략의 변화를 모색

□ 스리랑카의 원조수원 특성

○ 스리랑카는 지난 40년간 국제적으로 원조·개발협력활동을 제공받음. 초기에는 주로 ADB, UN, WB와 같은 다자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았지만 점차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과도 관계를 형성함.

- 단순히 원조자금을 제공받는 것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개발협력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사용함.
- 개발협력의 80%가 양자협력으로, 그동안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對스리랑카 양자협력을 주도함.

○ 1960년대에는 대외원조로 주로 식량·물품을 조달받았으나, 1977년 스리랑카 경제개방 이후 1970년대 후반~80년대에는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스리랑카의 경제 자유화를 지원하는 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함.

- 원조의 70% 이상을 양허성 차관이 차지함.

○ 1990년대에는 스리랑카의 정책개혁과 관련하여 ADB, WB, 일본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함.

○ 1990~2002년 사이 스리랑카는 약 99억 달러의 해외원조를 받음.

- 경제 인프라분야 35%, 사회 인프라분야 20% 차지
- 쓰나미 재난 이후 다자·양자 원조의 포트폴리오가 변화하였으며, 북쪽과 동쪽의 전쟁피해 지역에 재건 프로젝트를 수행함.
- 재건 프로젝트 관련, 특히 다자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2008년 이후 스리랑카로의 원조는 수출차관 및 상업대출(commercial

lending)이 증가하며 비양허성 자금(non-concessional funding) 형태로 변화함.

- 사회적으로 상업대출의 수요가 많아 소비가 매우 빠른 편임.

□ 대외 자금조달 전략

○ 스리랑카 정부는 개발정책 프레임웍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을 명시하여 이에 해외 자금을 집중 지원함. 자금은 주로 양자협력을 통해 조달받음.

○ 2010년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약속한 원조가 전체 중 거의 50%를 차지함.

- 중국 원조는 주로 수출차관의 형태로 공항개발, 도로재건 등을 포함하며, 인도는 프로젝트 기반의 대출을 제공함.

○ 대외자금 의존도 개선
- 1982년 GDP의 8.9%, 1991년 7.9%에서 2010년 GDP의 4.4% 차지
-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5년 100%에서 2010년 82%로 감소
- 부채의 구조에서 non concessional 대외부채가 점차 증가

□ 대외자금의 일반적 성향

○ 다자협력기구(ADB, WB, UN, IFAD)는 주로 soft/양허성 자금을 제공하며, 보건, 교육, 도로, 에너지, 관개사업, 재건사업에 자금을 제공함.

○ 중국, 인도,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과 같은 양자 공여국은 주로 항구, 도로, 공항, 에너지, 하수도, 물 공급, 철도사업 부문에 수출차관, 상업대출 형태의 자금을 제공함.

○ 또한 한국,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등은 비상업성 자금을 제공하여 관개, 철도, 보건, 도로, 에너지 사업을 지원함.

□ 스리랑카의 목표

○ 2016년까지 GDP 980억 달러 달성(현재 560억 달러 수준) 및 향후 6년간 경제성장률 6% 유지

○ GDP의 30~35%로 투자유치 및 매년 6~7% 고정적으로 공공투자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함.

□ 도전과제

○ 스리랑카는 중진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외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자금의 형태가 변화함.

- 양허성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제외됨.

○ 해외원조를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 요구되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 정부는 스리랑카의 개발에 적절한 공여국과 원조형태를 찾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함.

□ 전략

○ 상업대출과 비양허성 차관을 함께 활용하는 등 대외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비양허성 차관을 제공받는 창구로 ADB 및 WB에도 접근

○ 전통·비전통 공여국들과 강력한 양자관계를 유지하며 특정한 한 국가만을 선호하지 않음.

○ (대외원조 활용 효율성 제고) 투자에 대한 이익이 클 경우 양자협력으로 제공받은 상업성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

○ GDP 대비 부채비율 70%로 감소

□ 신흥공여국(남남 개발협력국)의 장·단점

○ 개발 프로젝트가 주로 단기로 구성됨.

- 사회, 경제가 실질적으로 개발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프로젝트는 단기로 진행됨.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가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됨.

- 국제기구는 프로젝트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개발도상국의 정권

주기와 맞지 않음.

○ (양자 관계개선) 단지 자금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과의 양자 관계가 향상됨.

□ 주요 질의 응답

○ 국가 내부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외협력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동의가 있었는가?

- 고기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식, 기술, 교육 분야에 더 중점을 두며 인프라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다.

○ 스리랑카는 많은 공여국들로부터 원조·개발협력활동을 제공받는데, 스리랑카 정부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가끔은 같은 프로젝트를 각각 다른 나라로부터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조율이 필요한데 정치·외교적 상황 때문에 조율이 힘들 때가 많다. 현재 스리랑카가 직면한 이슈 중 하나이다.

○ 신흥공여국은 주로 어떤 분야에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제공하는가?

- 한국, 중국,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이 주로 기술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협력을 하는 국가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에 따라 각각 다른 분야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개발협력에는 양자, 다자, 전통·신흥공여국 등 다양한 공여국이 있는데 개발도상국 내 공여국들간 갈등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공여국과의 지리학적 관계도 고려할텐데, 스리랑카에서 우선적으로 여기는 공여국이 따로 있는가?

- 이 이슈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국가에만 치우치면 한 분야에만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다른 분야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쓰나미 재난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쓰나미 피해 지역에 몰렸었다. 최대한 공여국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최근에는 공여국의 원조·프로젝트를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Case Study Sri Lanka

1. 중국-스리랑카 개발협력

□ 중국-스리랑카 양국 관계

○ 1957년 2월 7일 양국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그 이후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

○ 2010년 양국 간 무역이 증가하여 무역량이 21억 달러에 달함. 2009년 대비 중국의 수출은 27.2%, 수입은 45.6%가 각각 증가함.

- 2009년 말까지 중국에 55개의 스리랑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1660만 실 누적금액), 스리랑카에 중국 회사가 투자한 금액은 1580만 달러임.

□ 중국의 對스리랑카 개발협력

○ (중국 대외원조의 배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로 농업, 산업, 경제 인프라, 공공시설, 교육, 보건 분야에 주력함.

○ 1957년부터 스리랑카에 경제, 기술협력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스리랑카 자금지원의 형태를 다양화 함.

- 단지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preferential buyer's credit을 제공하는 등 다양화

○ 중국은 2010년 스리랑카 전체 대외자금 중 39.8%를 차지하면서 스리랑카에 가장 많은 양의 대외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 거듭남.

○ 중국의 對스리랑카 개발협력은 주로 경제 인프라, 사회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경제 인프라) 중국은 비교적 낮은 인건비,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인프라 건설 분야에 개발협력을 수행함. 경제 인프라 분야는 중국-스리랑카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로 자금은 주로 loan의 형태로 제공됨. 2009~2014년까지 고속도로, 국제공항, 항구, 화력발전소, 도로건설 등 분야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계획을 갖고 있음.

- (공공시설) 중국은 또한 공공시설 분야에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공공시설 건설은 주로 증여(grant)로 자금을 제공하며, 이렇게 건설된 시설은 스리랑카의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정치·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음. 스리랑카 국제컨퍼런스 홀, 대법원 건물, 국립극장이 이에 해당함.
- (인도주의적 원조) 2004년 쓰나미로 재난과 관련, 70000만 위안 가량의 재난극복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스리랑카의 분쟁지역 피해자에 거주지를 제공하고 홍수 피해를 돕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 2004년 스리랑카가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중국 정부는 응급구호 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신속히 의료팀을 파견함. 또한 3개의 항구 재건을 도움.
- 중국은 이 외에도 농·수산업, 물 공급, 인적자원 개발협력 분야에 협력 활동을 수행함.

2. 인도-스리랑카 개발협력

□ 인도 개발협력의 철학

○ 정치적 이해관계, 역사적 배경, 지리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개발협력 관계 형성함.

○ 남남협력의 경험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며, 자문의 형식을 통해 협력 활동을 수행함.

○ 인프라 개발 뿐 만 아니라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고자 함.

□ 프로젝트 수행 양상

○ 소규모 개발프로젝트(SDP: Small Development Project) 진행

- 2010년 6월 9일, 향후 5년에 대한 MOU 갱신
-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재정부 등 스리랑카 정부 주무부처 참여
- 재정한도는 2백만 달러로 주로 물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주요 개발협력 프로젝트

○ 가족 일상용품(Family pack) 260,000개 지원: 2008~09년 동안 가족이 매일 사용해야 하는 식량, 의복, 개인 위생용품 등 필요 물품을 제공함. (총 비용은 약 8백만 달러)

○ 응급 의료시설: 2009년 3월~9월 동안 Pulmoddai 및 Vavuniya 지역에 긴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5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3000건의 수술을 집행하였으며 무료 의약품을 제공함.

○ 지뢰제거(De-mining) 사업: 2009년부터 인도 지뢰제거 전문가 팀을 스리랑카로 파견하여 분쟁지역을 정리하고 비기술적 점검을 통해 많은 지역에 대해 정리 작업 수행

○ 2010년 스리랑카 가족들의 재정착을 위해 40만개의 시멘트 백 공급, 총 비용 175만달러 소요됨.

○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종자(씨앗)를 제공하는 등 농업지원 사업 수행 (총 비용 약 6백만 달러)

○ 이 외에도 어선 및 어업기구를 제공하고, 의족을 제공하는 등 보건 분야를 지원하며, 북-남부 철도 재건사업, 학교, 직업훈련센터, e-러닝센터설립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함.

- 통근·통학 지역 내 무료교통 서비스를 지원함.

□ 주요 질의응답

○ 중국과 인도가 다른 방식으로 스리랑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혜국에 랜드마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도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도와 스리랑카 간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시민사회의 변화, NGO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가?

- 기본적으로 수혜국의 요청과 우선순위에 따르고, 스리랑카 지역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접근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프로그램은 스리랑카의 상황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접근법이 스리랑카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시민사회의 협력을 위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은 현지 지역 NGO를 파트너 기관으로 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함께 협력하려 한다.

3. 싱가포르-스리랑카 기술협력

□ 싱가포르-스리랑카 양자 개발협력 프로그램

① 쓰나미 이후 재건 프로젝트

- 스리랑카 남부 지방에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 개의 학교 재건을 목표로 새로운 교실 건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공간 마련, 새로운 가구 제공
- 싱가포르 측은 외교부, 적십자사, 건설산업 합동위원회, 교육부, 건축·건설 당국이 참여했으며, 스리랑카 측은 외교부, 교육부, 쓰나미 교육재건 감독위원회(Tsunami Education Rehabiliation Monitor), 건설계약자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함.
- 싱가포르의 대외추진 프로젝트들을 관리, 운용하는 데 도전요소가 따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적합한 프로젝트 지원·이행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젝트 결과)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학교 시설을 공동 집합장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스리랑카 현지 업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지 노동력을 사용하며 현지 가구를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스리랑카 지역사회에 주인의식이 형성
- 싱가포르는 이외에도 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스리랑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함.

② 고위 공무원 대상 공공부문 리더십 프로그램

- 싱가포르의 공공정책, 계획, 공공부문 리더십에 대한 접근법을 다루는 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운영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함.
- SLIDA(Sri Lanka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station), 싱가포르 Civil Service 대학이 프로그램 지원·운영에 참가함.

- 20개 부처 50명의 스리랑카 고위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시 참가자들이 각각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운 교훈 등을 발표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함.

- (교훈) 스리랑카 공무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수원국과의 광범위한 협의가 필수적임. 실제 공공부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특정 그룹의 참여자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착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시 됨.

③ Jaffna 도서관 프로젝트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이사회는 2009년 10월 스리랑카 Jaffna 도서관에 책 500권을 기증함. 싱가포르는 2010년 Jaffna 도서관 아동도서 부문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함.

- (프로젝트 팀) 싱가포르 외교부 및 Singapore Sri Lankan Community, Prima Group, 싱가포르 International Foundation, 국립 도서관 이사회가 참여

- 도서관 내 아동도서 부문을 개선하여 어린이 간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사서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수행하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함.

- 어린이들을 고려한 리모델링 수행, 영어와 타밀어로 된 책 1300권 기증,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컴퓨터 기증, 사서의 능력 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독서와 outreach 프로그램 운영을 배우기 위해 싱가포르 도서관 방문,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양성을 위해 부모, 학장,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교훈 및 평가) Jaffna 프로젝트는 도서관 단장, 도서 및 컴퓨터 기증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사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함께 갖춘 프로젝트로 Jaffna 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음.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그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 스리랑카 현지 판매업체와의 연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 싱가포르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교훈

○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함. 공여국-수원국 간 시너지가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적 요소와 능력개발에 주력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함께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양질의 개선과 시스템 변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자 연수에 주력해야 함.

○ 공여국 차원에서 개발 지식과 경험을 갖춰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를 파악하고, 수원국의 필요·요구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 주요 질의응답

○ 싱가포르에서는 스터디 투어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프로그램 이후에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6개월 혹은 1년 후에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가?

- 그렇다. 모든 프로그램은 비용평가를 하고, 참가자들을 통한 피드백과 참여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특히, 스리랑카 및 싱가포르의 대사들도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이후 교훈 및 평가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첫 번째 프로그램 이후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정작업을 거친다. 6개월 이후 또 장기평가를 진행하고, 5~6년 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평가에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장기 평가는 실익을 얻지 못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4. KOICA(한국국제협력단)-스리랑카 개발협력 프로그램

□ KOICA 개요

○ KOICA는 한국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증여·무상원조 제공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함.

- 예산과 기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주요 분야를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함. 기본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협력 대상국의 MDG 실현을 위해 공공보건, 교육, 농업, 농촌발전,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에 주력

○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며 주인의식을 존중함.

○ 개발협력 활동에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함.

○ 그동안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주로 근접 국가들에 ODA를 많이 제공함.

□ KOICA의 對스리랑카 개발협력활동

○ 1995년에 KOICA 스리랑카 사무소 개소

○ (지원분야) 교육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제도수립, 재난극복, 산업 및 에너지 분야를 지원함.

- 교육: 직업훈련,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시설 개선
- 거버넌스: 경제개발전략, 무역·수출증진 전략, 세금·예산 정책
- 산업 및 에너지: 재생에너지, 교통정책
- 환경 등: 고형폐기물 관리, 환경오염방지 정책, 기후변화 이슈, 선진농업기술 등

○ (국가전략) 사회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에 집중하고,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공유를 통해 스리랑카의 제도적·인적능력을 형성함. 또한 북·동쪽 지역 개발과 재건을 위해 스리랑카 측의 노력도 필요로 함.

□ 스리랑카 개발협력 프로젝트

○ Hambandota 지역內 국제 컨벤션센터 설립

- 2006~11년 추진, 인프라개선 및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함.
- 기술자문 및 공무원 연수, 오디토리움 설립 등
- 한국에 컨벤션센터가 많은데 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

○ Dompe 지역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 2008~12년 추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모델 형성
- 한국의 통합환경관리 시스템의 통제를 pilot 연구로 제시한 후 추가 연수를 실시함.
- 오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 정책결정을 위한 정부 공무원 및 기술자 능력배양

○ Hambandota 지역 태양열 발생시설

- 2010~11년 추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함.
- 태양전지판 등 태양열 발생 및 변전 시스템 건설, 기술자문 및 관계자 연수

○ 동·북 지방 학교 재건사업

-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교실 및 필요시설을 건설

○ 이 외에 통신, 해양, 기상위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교육훈련 및 장학금 지원사업 및 KOICA 봉사단원 파견 등 전문가 교환프로그램을 수행함.

- 매년 100명의 학생, 연구원,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KOICA 봉사단원은 주로 교육분야 관련 자원봉사 수행

□ 향후 계획

○ 스리랑카의 MDGs 달성 및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전략 수립함.

○ 스리랑카의 개발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함.

○ 인적자원개발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스리랑카의 능력배양과 기술개발을 지원함.

○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 NGO와 타 개발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원조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임.

5. 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

□ 호주 원조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발도상국 지역의 빈곤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지만 아프리카 등의 지역도 지원함.

○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둠.

□ 개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호주정부의 지원약속

○ 2011~12년 동안 48억 달러 규모의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41억 달러가 AusAID를 통해 집행될 예정임.

○ 주요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아일랜드, 아프가니스탄, 베트남으로 구성됨.

□ 호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

□ AusAID의 對스리랑카 프로그램

○ AusAID는 남아시아지역 전략에 따라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국별 계획을 수립하는 중임.

-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음.

○ 향후 AusAID는 동북부 분쟁지역의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재건사업, 가정소득의 지속창출사업, 정부 및 공공분야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임.

6. 일본 JICA의 對스리랑카 지원접근법

□ JICA 개요

○ (비전)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개발(inclusive and dynamic development)

- 포용적 개발: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직면한 개발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성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함.
- 역동적 개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무대에서 중장기

적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의 자생적 강화 순선환을 형성하고자 함.

○ 미션

-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불균형 및 기후변화, 테러리즘, 경제위기 확대 등의 범세계적 문제 해소
- (균형적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외부 경제위기에 의해 쉽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 분쟁지역 및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역량개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
- (거버넌스 개선) 국민의 수요에 부흥하는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및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원
- (인간안보 달성) 분쟁, 테러리즘, 재난, 환경파괴, 전염병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 제도적 능력강화 지원

□ 스리랑카 지원 우선분야

○ 중장기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북부 지역의 재건 및 개발사업

- 빠른 재건을 위해 공공 인프라, 필요시설 건설

○ 교통, 에너지, 도시환경 등 분야에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 포괄적 개발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 사회 공공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시설을 개선

○ 재난관리 및 기후변화관리 능력 강화

-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

□ 일본의 지원규모

○ 2010년 ODA 차관으로 292백만엔, 기술협력으로 1,400만엔을 제공하였으며, 일본 전문가 1,724명을 스리랑카로 파견, 11,507명의 스리랑카 연수생이 JICA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함.

○ 스리랑카 총 원조규모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이며 1위는 중국으로 25%, 인도가 15%, WB가 11%를 차지함.

□ 일본 스리랑카 지원활동의 특징

○ 주인의식 및 자립노력·국내 역량개발을 중요시 함.

○ 능력배양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구성에서 재정단계까지 지원

○ 스리랑카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여 예측가능성을 유도하고 주요 산업부문에서 역할에 대한 계획을 공유함.

□ 여타 개발 파트너와의 조화

○ 분쟁지역 지원을 위해 인도주의적 기관들과 협력하여 회복과 개발의 단계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

○ 인프라 재정지원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주요 자금 제공 기구인 WB, ADB 등과 협력

- 주로 국내 고속도로, 지역도로, 에너지 발생기구, 통신망 구축에 활용

○ 현장에 대한 JICA의 지식공유를 통해 개발 파트너간 회의 활성화

□ 개발효과성에 대한 이슈

○ 스리랑카 개발협력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 스리랑카가 중진국의 반열에 합류
- 후분쟁에서 경제개발로의 주요 개발 목표 변화
- 정부의 강력한 주인의식
- 전통·신흥공여국 및 민간부문 등 다양한 재정지원

○ (정책의 조화가 필요) 특정 부문에서 스리랑카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재개해야 함.

○ 신흥 개발공여국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함.

7. 주요 코멘트 및 질의응답

○ 국가마다 다양한 개발협력 전략을 갖고 각기 다른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여국들의 우선순위 분야가 모두 다르다.)

○ 개발협력 분야 중 서로 비교우위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우 두 국가 모두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교육과 역량개발에 주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개발협력 공여국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공여국간 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 수원국에서 여러 공여국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서로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정책조화 관련, 인프라 및 교육 등 각 공여국들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접근법도 다를 수 있는데, 수원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 프로젝트 중 선택권이 생기는 것 아닌가?

- 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스리랑카는 현재 중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보건지표는 현재 좋은 편이다. 이런 종류의 대화가 매우 필요하다.

○ 지역적 통합 관련, KOICA는 양자 원조제공 기관이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요 사업은 양자 간 협력 사업이다.

3 Current Development Cooperation Debates: Challenge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1. 정치·경제 거버넌스 강화: 공여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거버넌스와 개발 연구

○ 최근 개발에 대한 전통공여국의 접근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좋은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하에 개발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정, 통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함.

- 열린 거버넌스 시스템,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성장률

□ 베트남內 기업을 위한 법률 환경조성 지원 사업

○ 비즈니스 협회와 정부간 회의를 통해 베트남 상공회의소와의 미팅을 주선, 지역경제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수행함.

○ 경제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로 진화함.

- '지역 비즈니스 협회와의 긴밀한 자문에서 발전된 비즈니스 포럼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PCI(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가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PCI map을 제작함.

○ 아시아재단은 거버넌스 개선과 더 나은 경제성과 달성을 위해 베트남 파트너에게 역량배양을 위한 기술협력을 지원했음.

□ 중국에서의 아시아재단 사업: 입법의 공공참여 프로젝트

○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함.

- 중국 현지 법학 학교와 입법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진행

○ 프로젝트는 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단계에서 혁신적인 공공참여 프로젝트로 발전되었음.

□ 또한 Open Government Inform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정보공개 법률를 제정함.

□ 중국 거버넌스 평가 프로젝트를 통하여 좋은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지표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 측면에서 어떻게 진화하였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함.

□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프로젝트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자금 불법사용간의 연관성을 연구함.

□ 주요 질의응답

○ C-GAP 이 공공참여, 투명성에 대한 단기적인 결과물들은 보았지만, 장기적인 인적자원이라든지, 경제성장등에 대한 지표들도 살펴보았는가? 최종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 장기적 지표들은 본 연구에 큰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 C-GAP 프로그램은 중국정부에 좋은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중국정부 정책관계자에게 tool을 제공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역 리더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정도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 미국에서는 원조기관이 타국에 원조자금을 제공할 때 언론을 통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미국 정부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이슈가 된다. 이는 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떠한가? 공여국 자국 내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는가?

- 인도의 경우, 인도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원조 사업도 의회에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2. 경제 인프라 프로그램: 사회목적 달성을 위한 플랫폼 (중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경험)

□ 중국 對아프리카 정책에서 인프라의 중요성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의 2000, 2003, 2006, 2009년도 선언문과 행동계획에서 인프라 분야를 주목하였으며, 2006년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서도 인프라 분야를 주목함.

○ 최근 EU의 아프리카 정책에서 인프라와 농업을 주요 두 개 부문으로 정하여 주목하고 있음.

□ 인프라: 중국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분야

○ 인프라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의 주력 분야로 아프리카와 중국 각각의 상호 필요에 의해 주력분야로 선정됨.

- (아프리카 측면) 도로, 전기, 물 공급 등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임을 감안, 경제도약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 분야에 주목함. 또한 아프리카 국민들의 생활 개선에도 기여함.

- (중국 측면) 중국회사의 해외진출(아프리카) 및 국제시장에의 적응을 목표로 함.

○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

- 중국은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주요 협력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유럽 국가들이 경쟁구도를 형성함. 2007년 중국이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분야에 제공한 자금은 동해 G8국가 모두가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에 제공한 자금과 비슷함.

○ (주요 참가자) 중국 수출입은행(차관 제공), 중국 개발은행, 국가소유 기업 및 민간 기업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함.

○ 아프리카 수원국 및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개발 우선분야가 인프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치·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짐.

○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 건설 산업이 갖는 경쟁우위

- 중국의 경제성장 기반 및 빠른 성장경험, 강력한 정부 및 수출입은행의 지원, 낮은 임금 및 높은 절제력, 낮은 입찰가격 및 높은 퀄리티, 낮은 재료 조달비용

□ 기회와 도전과제

○ (기회) 여전히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며,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금이 조성됨. 또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원재료 산업에서 인프라 산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남.

○ 도전과제

- 수원국 현지 노동력 활용 및 지역화 방안,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문제
- 기술이전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 유지 가능성 문제
- 살인, 납치 등 프로젝트 담당·수행자에 대한 보안문제
- 수원국의 역량개발 관련, 프로젝트 종료 후 인프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 고용창출, 교육 및 보건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발로 인한 spill-over 효과 극대화 문제(인프라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비즈니스 기회를 증폭시켜야 함.)
- 인프라 건설과 환경보호와의 관계 문제

□ 주요 질의응답

○ 지역능력 개발을 강조했는데,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수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가?

- 수원국 선정은 주로 정치적 요소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 중국은 수원국에서 자국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데, 지역의 능력을 개발하려면 수원국의 노동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이 지역 노동력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input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아프리카 근로자로 하여금 중국에서 연수를 받게 하고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온 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코스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 중국정부와 기관들은 아직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일단 개발을 먼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프리카는 대부분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공여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지 원조를 기다리고 이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통 개발의 과정을 보면 대외원조를 통해 점차적으로 수원국의 능력이 개발되어 경제개발을 이루게 되는데 아프리카는 bad circle 때문에 많은 개발을 이루지 못함.

3. 국제·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장점과 도전과제

□ 국제 개발협력의 변화

○ 주요 이슈의 변화
- 1950~60년대: 경제성장
- 1970~80년대: 사회개발 및 기본적 인간욕구(BHNs: Basic Human Needs) 충족
- 1990년대: 능력개발, 거버넌스 및 개발지속성
- 2000년대: 원조효과성

□ 새로운 현상: 원조피로(Aid fatigue)

○ 1980~90년대 공여국을 중심으로 원조피로 현상이 일어난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수원국을 중심으로 원조피로 현상이 나타남.

○ (전달: 원조분열현상) 197개의 양자 기관 및 263개의 다자기관과 56개 공여국이 8만 건의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

○ 다량의 시그널로 인해 오해와 혼란이 야기되고, White Men's Burden, 주인의식, 효과성 등이 주로 논의됨.

○ 많은 국가들이 ODA를 강조하지만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흐름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

□ 개발협력에서의 시민사회기관(CSO)

○ CSO의 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근거

- 저소득국 지역사회를 돕기에 더욱 준비된 상태로 수원국 국민들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음.
- 비영리, 초당파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비관료주의의 효율성을 갖고 있음.

○ 반면 CSO는 자원 및 개발 전문 인력 부족, 분산된 프로그램 수행, 단기적 시각 및 무책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국제개발협력의 체제가 변함에 따라, ODA 제공활동에 정부가 앞으로 나서기 보다는 CSO 및 민간 기업이 선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CSO와의 협력: 장점과 도전과제

○ 장점
- 개발협력활동 제공 채널의 효율화
- 비용대비 효율성 및 정통성 증진
- 개발자금의 새로운 근원 개발
- 현지 전문가 및 네트워크 활용
- 수원국 주인의식 및 프로그램 참여 고취

○ 도전과제
- 책임보장 및 전문성 향상 요구
- 지역 능력개발 강화 요구
- 공공부문에서의 인적자원 유출 방지
- 준국가기관으로의 변모, 새로운 형식의 관료화 방지

□ 개발협력 관련, 국제 NGO의 개혁

○ (Ownership) 국제 NGO는 수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등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Alignment) 수원국의 국가 시스템 및 개발전략에 맞는 프로그램 수행

○ (Harmonization) 다수의 원조 제공국·기관을 조화시키는 기관의 필요성 고려

○ 이 외에도 상호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 시각으로 개발협력 결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CSO 및 NGO

○ 한국의 CSO는 국내기반으로 시작되어 국제기반 단체로 변화한 것이 많음.

○ 한국 NGO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지역 NGO와 한국 국제 NGO 간 분열과 불평등을 겪고 있음.

- NGO 대부분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며, 주로 기독교 기반이 많음.

○ 한국 NGO는 역사가 짧은데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된 경우보다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된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경험과 선례가 부족함.

○ 아직까지 국제 NGO와의 네트워크가 미비하며 체계적인 구조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한국의 NGO 비율은 미국보다 높지만 서로 간의 조화가 부족함.

○ 최근 국제화된 세대가 한국 NGO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점차 성장해 가고 있음. 아직 국제 개발프로젝트에

한국 NGO가 참여하는 비율이 3%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질의응답

○ 한국 NGO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어떠한가?

- 정부보다 NGO가 개발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NGO의 개발협력활동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NGO는 대부분이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NGO 활동에 대해 옹호적이다.

○ 신흥공여국(아시아 공여국)이 CSO와의 연계활동이 적다는 시각이 있는데..?

- 아시아 공여국들이 개발협력에서 NGO와의 협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NGO와의 연계가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 국가별 NGO를 보면, 신흥국 NGO는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고, 선진국 NGO는 정부 예산이 많은 반면, 현장 활동은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4. 빈곤 퇴치 및 중진국 함정 방지

□ 중진국 함정

○ 1962~2008년 사이 한국과 오만, 두 국가만이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중진국의 단계에 정체되어 있음.

- 브라질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부채위기 및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해 1980~90년대에는 성장이 정체됨.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투자가 지난 20년에 비해 감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자금축적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소득분배, 혁신, 구조적 변화도 중요함.

- 중국의 투자율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지만 경제 성장이 균형적이지 않음.

- 중국은 도시와 농촌 간 개발격차가 큼. 1978년 지니계수가 0.3에서 2008년 지니계수가 0.46이 됨. 최근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역사적 성장경험: 정체, 분열 및 수렴

○ 산업혁명 이전 세계 일인당 GDP는 매해 평균 0.05% 증가하였고, 전 세계는 저소득국에 정체되어 있었음.

○ 산업혁명 이후, 서유럽 지역의 일인당 GDP 평균 성장률은 19세기에는 1%, 20세기에는 2%를 기록하면서 큰 divergence를 야기함.

- 일본 및 다른 후발주자는 서구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여갔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실패했음.

○ 1962년에는 저소득국, 중진국과 선진국의 일인당 GNI가 비슷했지만 이제는 차이가 있음.

○ 저소득국이 중진국으로 발전할 때 일인당 GNI가 매년 2.1% 증가했다고 하면, 이 국가가 고소득국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120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는 역사적 결론이 도출됨.

-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고소득국으로 변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 성공적 경제성장을 위한 요소

○ 세계경제의 성장
○ 안정된 거시경제
○ 높은 저축·투자율
○ 시장이 자원배분
○ 열정적이며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정부

○ 1950년 이후 단 13개 국가만이 25년 이상 평균 7%의 경제성장을 하였음.

- 아시아 9개국: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 다른 지역 4개국: 보츠와나, 브라질, 몰타, 오만

□ 가치사슬의 고도화

○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가치체인의 조립·생산단계로 산업화를 시작(의복생산 등)

○ 단지 몇 국가만이 가치체인의 높은 단계인 R&D와 마케팅 분야로 산업을 변화함.

- 국가가 비교우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부와 민간부문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보 및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성장의 창출 및 지속화

○ 1단계: (FDI 유치) 대외 도움을 기반으로 단순 제조업 시작 (베트남)

○ 2단계: (기술의 국내화) 지원 산업을 육성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외 도움을 받음. (태국, 말레이시아)

○ 3단계: (독창성)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춰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음. (한국, 대만)

○ 4단계: 글로벌 리더로서 혁신과 제품 디자인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일본, 미국, EU)

○ 많은 국가들이 FDI를 유치하여 경제개발을 이루고자 하는데, 선진 기술과 지식을 수원국에서 소화하지 않으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발전하기 어렵고, 중진국 함정을 겪게 됨.

○ 지역적·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더 많은 투자와 노하우를 필요로 함.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부가가치 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개발해야 함.

□ 개발을 위한 정책적 도전과제

○ 혁신 및 외부효과의 조화를 이루고 정부 부패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

○ 재정정책 및 규제 수립,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유연한 가격조정

○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 통합

○ 개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부가가치 및 위기관리 능력을 확대

□ 산업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국가가 기업체와 협의하여 winner를 선정

○ 국가는 winner를 선정하면 안 됨. (자기만족의 무능 혹은 부정부패).

○ winner 스스로 분야 선정할 수 있음. (정보수집 및 문제해결 네트워크 도움필요)

○ 후발주자들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원숙한 산업에서 winner를 고를 수 있음.

○ winner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어떻게 주변산업에서 중심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 winner는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위기를 전략적으로 감수하고 기술축적, 규모의 경제, 상호보완적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시설만 설립할 경우 정부는 재정난을 겪을 수 있음.

□ 한국의 경험

○ 한국의 경우 70년대에는 경공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상품수출을 확대함. 그러나 일본을 벤치마킹한 후 중공업이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함. 이제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

- 비전과 리더십을 활용하여 빠르고 공유된 성장을 이끌어 냄.
- 행동기반(성과중심)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피드백
- 정보와 위기를 공유할 수 있는 big-push 파트너십
- 기업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성과 창출

-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수출, 규모의 경제 추구, 수출을 통한 메커니즘의 개선 달성
- 국제적 벤치마킹을 통해 잠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 발견
- 국내 가치체인에서 누락된 요소를 찾아 가치 사다리 높은 단계로 발전
- 모방에서 혁신으로 변화, 기술 축적

□ 주요 질의응답

○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차관에 많은 의존한다. 중진국으로 발전하기가 힘든데 역할과 교훈은 무엇인가?

- 각 국가마다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 한국은 해외 투자를 받기에 어려운 환경이었고 일제 식민지였던 경험 때문에 외자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다. 동남아시아는 외자를 유치하며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시장에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DFQF등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말레이시아는 현재 R&D 투자가 필요하고 두뇌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로 정권이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데, 따라서 개발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한 상황이고 강력하게 정책을 이끌어 갈 정치세력이 없다.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현재 많은 투자가 베트남으로 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당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가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창의성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더 부합한다.

4 Current Development Cooperation Debates: Challenges to Aid Effectiveness

1. Country Ownership: How is this best achieved?

□ 주인의식이란 무엇인가?

○ 수원국은 리더십을 갖고 개발정책·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활동을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 수원국은 자국의 개발수요에 대해 책임을 갖고, 개발아젠다 수립, 자원배분, 개발프로그램 계획과 이행의 과정에서 공여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

○ 수원국은 원조 프로젝트 협상단계에서부터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프로젝트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

○ 수원국 정부는 자생력을 갖춘 경제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하며, 개발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주인의식에 기여하는 요소

○ 주인의식의 두 가지 단계

- (단기)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
- (장기) 지속적 경제개발

○ 주인의식의 세 가지 범주

- 국가의 주인의식: 개발정책 및 전략수립
- 기관의 주인의식: 개발 프로젝트 수행기관
- 사회의 주인의식: 인적자원 등 사회에 속한 자원

(태국의 실제 수원 경험으로부터 도출)

○ 원조 과정에서 주인의식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가?

- 수원국 내 프로젝트 수행기관에 명확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주인의식 형성
- 교육 및 경제이익 생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인의식 형성(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은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될 때 형성됨. 또한 이익 관련 지역사회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주인의식 생성을 저해함.)
- 사회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장기 주인의식 형성

○ 주인의식의 형성을 위해 어떤 원조관계가 필요시 되는가?

- 프로젝트 형성: 결정단계에서 수원국의 참여를 확대
- 프로젝트 이행: 실무자에게 프로젝트 예산관리 권한을 부여할 때 주인의식 제고
- 프로젝트 결과: 프로젝트로 인해 형성된 이익을 직접적으로 인지

□ 주요 질의응답

○ 수원국에서 주인의식을 키우기 바라지 않고 대신 공여국 측에서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 주인의식은 그 자체가 수원국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수원국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국 정부, 지역사회로 하여금 개발프로젝트로 인한 실질적 경제이익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 개발협력 방식 중 프로젝트 지원이 예산지원보다 주인의식을 형성하고 확대하기에 더 쉬운가?

- 예산지원은 공여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개발정책, 빈곤감축, 보건 등 정책단계에서 주인의식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 Aid predictability and aid transparency: A Chinese perspective Based on South-South Cooperation

□ 원조 효과성 개선방안 (중국의 시각)

○ (수원국의 의지와 수요에 기초) 수원국이 독립적으로 자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개발 모델을 결정하도록 함. 중국은 자국의 개발협력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수원국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협력을 제공하고자 노력

○ (수원국의 자생적 개발능력 향상) 중국은 수원국의 인력·기술력 양성을 위해 대외원조를 제공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수원국이 자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수원국의 적극적 참여 유도) 중국은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수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원조 프로젝트 선정 시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안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함.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수원국 내 실제 환경을 조사하여 프로젝트의 시행가능성을 조사

- 프로젝트 수행 시 중국·수원국 대표가 이를 감독하며 완성여부를 함께 확인함.

- 수원국 정부 및 국민들로부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받음.

○ (시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혁·혁신 추구) 중국은 국내·국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개발협력활동을 위해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추구

○ (지속적 원조자금 제공) 중국은 2004년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국력강화를 바탕으로 대외원조자금을 평균 29.4%(2004~09년) 확대함. 향후 중국은 MDG 실현을 위해 남남협력 뿐 아니라 원조자금 제공 규모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개발협력 제공자·양상(modalities)의 다양화 장려) 국제 개발협력에서 파트너간 독립성, 주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 원조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국의 노력(direction)

○ 중국의 대외원조 정보공개 관련, 고려할 사항

- 원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
- 원조정보 공개에 대한 수원국의 찬성여부
- 선진공여국 대비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아직 미비한 수준임.

○ 중국은 대외원조에 대한 백서를 발간, 원조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걸음 내딛음.

○ 향후 중국의 노력

- 중국은 원조의 체계를 극대화 하고, 중장기적 원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원조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주요 질의 응답

○ 현재 중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세대도 점차 국제사회를 인식하는 세대로 교체되고 있는데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외원조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공여국 국민들의 대외원조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는 세금 납부 등으로 인해 기존세대 보다 더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원조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를 바라며,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soft aid를 제공하기를 선호한다.

○ 중국은 수원국의 산업화관련 많은 grant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원국이 무이자 차관을 갚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중국은 당연히 수원국이 무이자 차관을 갚기를 바라지만 상환을 강요하거나 재촉하지는 않는다.

○ 원조제공 정보 공개에 대한 이슈는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정보제공을 다양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중국은 인터넷, 공중파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증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5 Perspectives of Selected DAC Donors on Asian Approaches

1. 아시아 접근법에 대한 호주의 시각

□ 전반적 시각

○ 개발협력 제공자가 증가함에 따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국가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다른 공여국, 정부, NGO, CSO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함.

○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해야 함. 개발은 장기적 프로젝트로 개발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량배양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함.

○ 신흥공여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야 함.

□ 국가적 이익

○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은 호주 자국의 이익에 기여함.

- 모든 공여국은 원조제공으로 인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함.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공여국 내 여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호주는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더욱 안정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국제적 번영과 안정을 위해 투자제공

- 호주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국제적 보안과 안정,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간주함.

- 또한 원조를 통해 빈곤을 감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호주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함.

- 호주는 국제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MDGs 달성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 개발협력의 복잡성과 다양성

○ 국제개발협력의 정세가 빠르게 변화함.

- 다양한 글로벌 원조 제공자가 출현, 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 원조의 구성이 변화함.

- 새로운 개발 파트너와 국제통합의 증가추세는 개발협력 및 세계 빈곤감축에 기회가 될 것임.

- 신흥국들은 원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신흥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전체 원조흐름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민간투자가 원조자금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할 것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 지역적 기반의 협력활동이 이루어짐.

○ 아시아 공여국은 ASEAN의 개발을 위한 주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함.

- 호주는 ASEAN이 개발 프로그램 전달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였음. (태평양횡단 파트너 정책대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참여)

○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개발은 주변 지역 전체의 상승세를 유도함.

○ 세계은행 trust fund를 통해 호주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네시아에 교환방문을 지원, 지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중심의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함.

□ 지역이니셔티브: 케언즈 Compact

○ Compact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조화와 협동을 향상시키고 모든 개발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 케언즈 compact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함.

- 호주는 이전 의장국이며 주요 공여국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지원함.

-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와 보고의 체계를 적용함.

○ 원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수원국' 관계에서 정책대화, 의무와 목적을 공유하는 협력국의 관계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 케인즈 compact는 태평양 지역 섬 국가들이 자국의 개발 아젠다에 대해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며, 주요 원칙으로 주인의식 강화, 상호책임, 민간부문 및 정부의 중요성, 인프라를 강조함.

□ 부산 세계원조총회를 앞두고, 호주는 원조 효과성 이후의 단계를 생각하고 있음. 호주는 더욱 광범위해진 원조환경과 호주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2. 토론자 코멘트

□ 개발관련 이슈들

○ 글로벌 불균형, 지적재산권, 무역, 기준, 환경 등의 이슈들이 자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남남협력은 다양한 전략 하에 수행되며, 무역·투자는 남남협력을 이끄는 시발점이 됨.

□ 개발에 대한 도전과제

○ 중진국 함정, 인적자원개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역량배양이 도전과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역량에 대한 이슈는 법적, 제도적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

○ 또한 소득불균형과 환경문제도 개발에 새로운 도전과제로 부상함.

□ 개발협력에 대한 무역의 중요성

○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관련 정책대화를 실시해 개발격차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DAC 공여국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라면 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우리는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남남협력의 한 요소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고 실제로 스리랑카와 인도 간 관세자유화협정을 통해 양국은 이익을 얻고 있음.

□ 아시아의 파트너십

○ 아시아의 개발협력정책은 수년에 걸쳐 진보해 왔고 아시아 개발협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통된 특징들은 존재함.

- 아시아 공여국들은 자국의 소득이 낮거나 이율이 낮을 때도 개발협력활동을 수행했으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

○ 정치적 이유와 글로벌 경제구조 문제로 인해 남남협력이 국제개발협력에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어옴.

□ SDP(Small Development Program)

○ SDP는 수원국 현지요구와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현지 사회 구성원의 개발협력에 대한 시각을 변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

- 주로 인프라 개발 및 역량강화에 초점: 교육, 보건, 지역개발

- 고가의 자문사업 및 감독관이 필요로 되지 않음.

○ SDP는 향후 어떻게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가 도전과제일 것임.

3. 주요 질의응답

○ 한국은 개발협력 파트너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리적으로 더욱 근접한 국가에 주력하고자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요인이 많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개발협력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는가?

- 호주의 이해당사자들은 호주가 더 큰 경제권으로 발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호주가 국제원조 등 글로벌 이슈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호주는 지역적으로 근접한 국가 뿐 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원조를 제공할 때 지역 간 균형을 맞추고자 하지만 일부 지역이 더 주목을 받게 된다.

○ 남남협력을 이용하여 원조 프로그램의 융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인프라 분야 원조와 같이 규모가 큰 것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사회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수원국이 직접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 중국은 넓은 시각에서 원조와 투자제공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 투자, 무역, 기술이전 등이 공여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투자, 무역, 기술이전도 원조라고 생각한다.

○ 신흥공여국들에 OECD DAC 가입을 추천할 것인가?

- (호주) 신흥공여국들이 DAC에 가입하고 새로운 개발 원리·체계를 소개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DAC의 메커니즘에 참여하여 함께 원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환영한다.

- (인도) 공여국들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DAC이 정하는 목표와 별개로 공여국과 수원국간 상호 이익을 위해 개발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원조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6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the Aid Debate

○ 지역통합 및 지역통합기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ASEAN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채널링을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활동은 지역통합을 촉진하고 공여국의 부담을 줄여주며 이행과 과정에 대한 감독기능을 촉구한다.

○ 한국은 한편으로는 DAC에 가입하여 전통공여국과 연결되어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공여국과 연결되어있는데, 어떻게 이 둘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 한국은 DAC 회원으로 원조효과성에 대해 논의할 의무가 있다. 전통공여국들은 부산총회에서 원조효과성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원할 것이다.

○ 아시아 공여국의 사업 모델은 전통공여국과는 다른데, 이 사업의 영향 측정과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원조는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중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개발을 위한 성공요소 중 주인의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남남협력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 규모를 확대하는 것(Scale-up)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남남협력 프로젝트 자체의 규모를 늘리자는 의미가 있고, 사례연구를 폭넓게 전파하자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후자의 방향으로 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형태의 개발협력이든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유연성 있는 개발 원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그러하듯이 아시아 내에도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우리는 획일적인 '아시아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원칙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 남남협력은 그동안 중심이 되는 원칙 및 특정 지시사항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DAC 공여국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남협력이 규모를 확대할 경우 강제성이 부과되어 프로젝트가 의무화 될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 삼각협력관련, DAC 회원국들이 중국과 아프리카의 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각협력 및 다른 ODA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

-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삼각협력의 형태를 원하지 않으며 양자협력을 더 선호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개발파

트너가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규모를 확대하려면 삼각협력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인의식·파트너십 관련, 진정한 주인의식은 수원국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원국이 자국의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최근의 개발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공여국의 세납자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인의식과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

○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은 전제조건이 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를 주인의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이다. 스리랑카 등 수원국이 어떻게 공여국을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동시에 중요하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공여국이 어떤 접근법으로 개발협력을 하는가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총회 이후 한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

○ 이번 간담회에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수원국 대표로 초청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측 발표자가 불참하여 스리랑카 사례만 공유할 수 있었다. 다음 간담회를 통해 수원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하기를 바란다.

○ 부산총회에서 원조효과성 이슈를 넘어 개발효과성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 개발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컨센서스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조효과성 영향평가 indicator와 관련하여 모든 프로세스에 자세한 indicator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정권유형(political regime type) 보다는 참여도, 책임성, 투명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정부가 DAC에 가입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를 DAC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접근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DAC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국제개발협력 전반적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 것이다.

○ 부산 세계원조총회는 원조효과성에 대해 논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고 부산총회 이후 DAC하의 원조효과성 논의 부서는 해체될 예정이다. OECD 실무진은 개발효과성 보다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아젠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회의 사진]

※ 첨부: 부산 2011, 원조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한국의 노력

○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국가로 원조와 개발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perfect setting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전통공여국과 신흥경제권·개발도상국의 파트너십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부산 세계원조총회는 개발을 세계적인 주요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임.

□ 부산을 향한 한국의 비전과 중점분야

① 부산 세계원조총회에서는 원조효과성 이슈와 새롭게 제시된 개발 이슈를 함께 다루어야 함.

- 세계원조총회의 주된 목적은 파리와 아크라 포럼에서 논의된 원조의 질 개선 관련 commitment를 점검(이행여부, 불이행 사유, 미완료 사업에 대한 향후방향 설정)하는 것임.
- 원조를 더 넓은 문맥에서 생각하여 개발을 향한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부산총회는 'aid'에서 'aid and beyond'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임.

② 부산총회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자리가 되어야 함.

- 세계 원조구조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개발 챌린지와 이슈에 직면하고 있음. (DAC 비회원국과 신흥경제권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로 부상함. 시민사회, 재단, 민간기업 또한 개발협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 부산총회에는 160개국, 의회, 다자기구, CSO, 민간부문에서 2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서로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결과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임.

- 상호존중 및 의무를 기반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함. 이 파트너십은 유연한 모델로 취약국가, 저개발국가, 중소득국가 등 각기 다른 국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함.

③ 부산총회는 21세기 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추구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자리가 되어야 함.

- 향후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과정 중에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 개선과(HLF4) MDGs 달성과(UN), 지속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포괄적인 성장을 촉구하는(G20) 내러티브를 연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임.

□ 아시아의 경험 및 접근법

○ 국제 개발환경에서 복잡성은 도전위기가 되지만 동시에 다양성은 상호학습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아시아는 개발 성공사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부산은 한국, 중국, 인도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원조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기에 적절한 장소임.

○ (아시아 개발협력국의 차별성) 개발관련 정책대화 및 파트너십 중시, 지식공유, 수원국 주인의식 및 리더십 중시, 역량개발, 수원국 개발정책과의 일치 중시